

研究論文

地理空間의 談論化 과정에 대한 一考察  
—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擇里志』를 중심으로 —

신은경\*

I.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에 대한 개괄적 이해	V.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의 문화사적 의의: 맺음말을 겸하여
II.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생성 원리	<참고문헌>
III.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의 비교	<국문요약>
IV. 『신증동국여지승람』·『택리지』의 성립과 『水經注』	

I.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에 대한 개괄적 이해

세종 때 전국 지리지인 『八道地理志』가 편찬된 후 세조는 집현전 학사 梁誠之에게 여기에 지도를 넣어 새로운 지리지를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八道地志』다. 그러나 이것은 세조때 완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성종10년(1477)에야 완성되어 진상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서거정·양성지 등이 왕명을 받들어 시문선집인 『東文選』을 펴내게 되었다. 성종은 『팔도지지』를 바탕으로 시문을 대량 첨재하도록 하여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의 초고가 완성되었다. 1차 완성본은 활자화되지 않은 채 여기에 수정이 가해지게 되어 2차 완성본이 인쇄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동국여지승람』이다. 이 과정에서 宋의 祝穆이 1239년에 간행한 『方輿勝覽』, 明나라 李賢

\* 우석대학교 교수, 고전시가 전공(fnsek@woosuk.ac.kr).

등이 1463년에 편찬한 『明一統志』의 체제가 본보기가 되었다. 그 후 연산군, 중종 때도 수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李荇·洪彦弼 등이 주축이 되어 중종25년(1530)에 증보판을 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sup>1)</sup>이다. 1차 완성본은 총50권, 2차 수정본과 증보판은 총55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편찬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팔도지지』와 『동문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문지리서라 할 수 있다.

『택리지』는 李重煥(1690~1752)의 저술로, 그가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를 갔다가 해배된 후에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여기저기 전국을 떠돌면서 可居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때의 경험을 글로 남긴 것이다. 이 책은 달리 『八域地』, 『八域可居地』, 『東國山水錄』, 『八域紀聞』, 『士大夫可居處』 등으로도 불리는데, 사농공상을 언급한 「四民總論」, 전국 8도에 대해 기술한 「八道總論」,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을 제시한 「卜居總論」, 그리고 종합편인 「總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들이 말해 주듯 이 책은 단순한 지리서가 아니라 지리 즉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자신의 실제 경험에 입각하여 기술한 인문지리서의 성격을 지닌다.

『승람』과 『택리지』는 지리서이면서 다량의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승람』에는 詩·辭·賦·記·說話 등 3,500여 편 이상의 문학작품이 인용되어 있고 ‘제영’ 항목에만도 총 1,35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2)</sup> 그리고 『택리지』에는 이중환 자신이 지은 한시 4수를 포함하여 총 17수의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팔도총론」에 4수, 「북경총론」에 13수이다. 한시 외에 설화적 성격을 지니는 이야기, 일화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 두 저술은 지리학과 문학 양 영역에 걸쳐 있는 담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의 고전 텍스트들 중에는 이처럼 경계 영역에 위치한 담론들이 적지 않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열전」, 『악학궤범』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승람』과 『택리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지리학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문학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얼마 되

1) 논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앞으로 『승람』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2) 李演載, 「東國輿地勝覽의 文學의 性格」, 『건국어문학』, 19(1995). 정의성은 ‘제영’의 시편을 1,355수라 하여 통계 수치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정의성, 「『新增 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와 ‘題詠’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권 4호(1997).

지 않는다.<sup>3)</sup> 이와 같이 경계 영역에 위치한 담론들은 근대 이전의 문학 텍스트들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했는가를 말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계 영역의 담론이라는 점 외에도, 『승람』과 『택리지』는 어느 지점에 실재하는 지리공간을 문자로써 담론화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어느 특정 지리공간을 중심으로 그 곳의 산수자연, 사회, 문화 등의 지리적 현상을 서술함과 동시에 그 곳에 관계된 시문이나 고사, 전설이나 지명유래 등을 아울러 서술함으로써 그 곳에 대한 실재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텍스트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 두 저술에 대한 구체적인 조명에 앞서,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지리서와 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이런 형태의 담론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용어사용의 문제이다. 『승람』이나 『택리지』에 대해서는 지리학·역사학·철학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담론의 형태 및 그 명칭에 대한 문제는 이들을 문학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다루고자 할 때 표면으로 부각된다. 지리학이나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언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언술이 어떤 형태의 담론에 속하는가는 관심 밖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중국문학 연구자들은 ‘地理博物體’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행한 ‘志怪’의 한 갈래로 분류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유형의 담론이 성행하게 된 배경으로 지리서의 성행과 박학다식을 숭상하고 박물적 지식을 중시하는 학문 풍토를 들고 있다.<sup>5)</sup> 지리박물체라는 명칭이 말

3) 이연재, 정의성, 위의 논문 및 신명주, 「<관동별곡>과 『신증 동국여지승람』 集錄 한시문과의 관련 양상,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유풍연, 「동국여지승람 소재 한시 연구, 『鄉土文化研究』, 6집(1990); 이경우, 「문학의 주제로서의 지리공간: 『택리지』를 중심으로, 『승려어문학』, 1집(1984) 등 수 편이 있을 뿐이다.

4) 과문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학적 측면에서 이들 저술을 연구한 예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연구들도 대개는 이 저술들이 지니는 문학적 성격, 즉 『승람』의 ‘題詠’ 항목이나 ‘樓亭’을 소재로 한 시편들에 초점을 맞춰 논지를 전개하고 있고, 이처럼 경계영역에 위치한 텍스트들을 문학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문학적 담론의 어떤 범주, 어떤 유형에 소속시킬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예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옛날부터 ‘문학’의 개념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정의가 이루어진 까닭에 『산해경』이나 『신이경』, 『십주기』 같은 경계영역의 담론들을 문학사에 편입시켜 ‘志怪’라고 하는 서사체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논의해 왔다. 본고의 초점은 이들 텍스트들의 명칭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지리박물체’라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5) 김지선, 「魏晉南北朝 志怪의 敘事性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정민경, 「중국 地理博

해주듯 이런 유형의 담론은 地志의 성격과 博物志의 성격이 복합된 것으로 고대의 지리학과 박물학이 결합되어 생성된 것이다.<sup>6)</sup>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수용하여 『승람』과 『택리지』를 ‘지리박물담론’으로 범주화하고 『승람』을 주 대상, 『택리지』를 부 대상으로 하여 지리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둔다. 그리고 그 성립에 있어 北魏의 酈道元이 지은 『水經注』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아 그 배경을 검토하는 것에 2차적 목표를 둔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승람』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리고 어떤 원리를 토대로 담론이 형성되는가를 살필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결과는 『승람』뿐만 아니라 지리박물담론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논의를 토대로 『승람』과 『택리지』의 비교가 행해질 것이고, IV장에서는 그 성립배경으로서 『수경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II.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생성 원리

지리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담론화되는 구체적인 공간단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숲츠는 인간을 ‘세계내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사회·문화적 전체로 귀속시키는 공간 형태를 실존공간이라 하고 이 실존공간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난다고 하였다.<sup>7)</sup> 그 중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한 단계는 지리적 단계이고, 경관적 단계, 마을로 대표되는 도시적 단계, ‘집’으로 대표되는 주거의 단계, 인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가구의 단계 순으로 범위가 좁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하위 단계로서 인체의 손의 작용을 연장한 기능과 관계가 있는 기물의 단계를 제시했다.<sup>8)</sup> 『승람』에서 궁극적인 담론화의 대상은 ‘전국 팔도의 疆域’ 즉 지리적 단계의 공간이다. 그러나 실질적·구체적으로 담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단위는 전주부, 익산군, 김제군, 고부군, 정읍현, 부안현 등과 같은 도시적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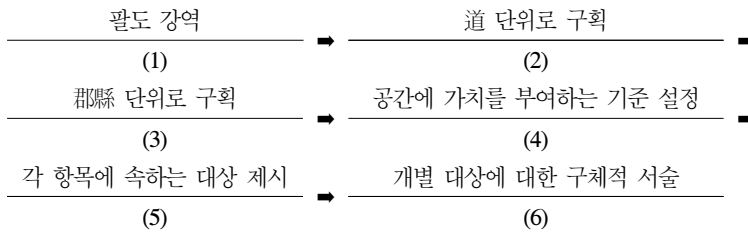
物體 서사의 형성과 전개, 『민족문화사연구』, 30집(2006).

6) 정민경, 위의 글, 103~104쪽.

7) C. Norberg-Schulz/김광현(역), 『實存·空間·建築』(泰林文化社, 1991), 13~15, 22~29쪽.

8) 위의 책, 55~56쪽.

계의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핵심어’라는 말로 나타내기로 한다. 전라도를 예로 들면 全州府를 위시하여 총 57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담론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각 핵심어는 군현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건치연혁, 형승, 누정, 제영 등 20여 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고 각 항목마다 그에 속하는 대상이 열거된다. 전라도 전주부의 ‘누정’ 항목을 예로 들면 鎮南樓, 濟南亭, 拱北亭, 快心亭, 清讌堂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를 ‘표제어’라는 말로 나타내기로 한다. 표제어는 앞에 예를 든 것처럼 대개 명사형으로 표현되는데,<sup>9)</sup> 지리박물담론의 구체적 서술은 바로 이 표제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술대상인 표제어에 대하여 주석 형식으로 설명이 부가됨으로써 실질적인 담론화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표제어에 대하여 설명과 서술이 이루어진 단위를 ‘텍스트’라는 말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 과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핵심어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서술의 양은 증가하며 서술의 내용은 구체화된다. 지리공간의 담론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2)단계부터이지만 실질적인 담론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4)단계부터이다. 단계별로 어떤 원리 하에 텍스트 생성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공간의 구획과 가치부여의 기준설정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관계에 대하여 ‘공간은 장소에 대한 연속적 지각의 총합’<sup>10)</sup>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장소는 구조화된 공간’<sup>11)</sup>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9)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俗尙價利’나 ‘民不樵朴’과 같이 語節이나 문장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제영’ 항목의 경우에는 전체 시 구절 중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표제어로 제시되기도 한다.

린 정의에서 드러나듯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갖지 않은 채 그냥 ‘거기에 놓여있을 뿐인’ 어떤 공간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다시 말해 뚜렷하지 않은 이미지로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기하학적 정체성이 부여될 때 그 공간은 하나의 ‘장소’가 된다.<sup>12)</sup> 즉, 장소는 추상적이고 ‘무형태’(the formless)의 속성을 지닌 공간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형태’(the formed)로 존재하는 곳이다.<sup>13)</sup> 이렇게 볼 때 ‘장소’는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되고 경제와 관계된 활동이 펼쳐지는 곳<sup>14)</sup>이며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 인간의 삶과 생활이 영위되는 곳이다.

『승람』이나 『택리지』 및 기타 지리박물담론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것은 팔도 강역이다. 그러나 ‘나라’나 ‘국토’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가시적인 지도의 형태로 제시된다 해도 그 실체는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막연하고 광대한 범위를 지닌 공간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는 추상적인 공간을 덜 추상적인 혹은 작은 범위의 단위로 ‘구획’하는 일이다. 『승람』이나 『택리지』에서 국토 강역의 1차적 구획은 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평안도·경기도·전라도 등의 ‘道’ 또한 인간의 지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지리적 단계의 공간이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다시 더 작은 행정단위인 府나 縣으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행정단위는 그 곳에 존재하는 고적이나 건물, 누정, 학교, 산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 부나 군·현이 지리공간을 담론화함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승람』의 경우 국토 강역 전체를 8도 단위로 나누고 각 도 앞부분에 해당 도의 全圖를 붙여 놓았는데 이 지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지리적 단계의 공간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한다. 지도는 그림의 표현방식에 따라 ‘圖面式’ 지도와 ‘繪畫式’ 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상으로 삼은 지역의 전체적인 형태, 산맥과 수맥, 도시와 촌락, 도로와 거리 등을 평면적으로 도면화시켜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10) Norberg-Schulz, C., 앞의 책, 21쪽.

11) Tuan, Yi-Fu, “Space, Time, Place: A Humanistic Frame,” *Timing Space and Spacing Time* Vol.1(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8), p. 7.

12) Tuan, Yi-Fu,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p. 17.

13) Tuan, Yi-Fu, *op. cit.*(1978), p. 7.

14) Tuan, Yi-Fu, *op. cit.*(1977), p. 4.

특정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김새 등을 산수화를 곁들여서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sup>15)</sup> 『승람』에 그려진 각 도의 지도는 회화식 지도에 해당하며 추상적이고 광대한 국토와 담론화의 직접적 대상인 부나 군현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지리공간의 담론화를 용이하게 하는 매개 구실을 한다.

『승람』의 경우 각 군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20여 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치연혁, 관원, 군명, 성씨, 토산, 풍속, 산천, 형승, 누정, 譚院, 佛宇, 寺廟, 고적, 인물, 題詠 등이다. 이 항목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인간의 삶에 의미 있는 구체적 장소로 만드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연혁은 한 고을의 흥하고 폐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풍속은 한 고을을 유지하는 것이며, 형승은 그 고을의 四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고, 廟祠는 祖宗을 높이는 의도이며 학교는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므로 중요하고 사찰은 역대로 그 곳에서 복을 빌었기 때문이며 토산은 貢賦가 나오는 원천이고 院宇는 행려를 쉬게 하고 도적을 막는 구실을 하며, 누대는 때에 따라 놀며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기에 『승람』의 항목으로 설정했다고 하는, 徐居正의 『동국여지승람』 서문은 바로 공간을 장소화하는 가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추상적인 지리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공간을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단위로 구체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의 장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 2. 인접과 확장의 원리

『승람』 중 전라도 ‘전주부’를 예로 들면 23개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가치 부여의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 이어 각 항목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뒤따른다. 앞의 요약 중 (5)단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은 인접성에 기초한 확장의 원리이다. 전주부 ‘山川’ 항목의 예를 들면, 이 항목 하에 ‘乾止山’ ‘完山’ ‘高德山’ ‘母岳山’ ‘麒麟峰’ ‘萬景臺’ ‘新倉津’ ‘德眞池’ 등 24개의 대상-즉, 표제어-이 제시되어 있는데 ‘산천’과 이들 표제어들은 전체와 부분의

15) 안휘준, 『옛지도와 회화』, 한영우·안휘준·배우성(공저),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효형출판사, 1999), 185쪽.

관계에 놓인다. 즉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환유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24개의 표제어들은 전주부의 산천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호 등가관계에 놓인다. 이렇게 하여 ‘산천’ 항목은 24개의 표제어로 환유적 확장을 이루게 된다.<sup>16)</sup> 대상이 되는 행정단위가 클수록, 군현의 영역이 넓을수록, 행정적·문화적·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표제어의 수는 많아진다.

### 3. 대화의 원리

공간을 가치가 부여된 장소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 각 항목에 세부사항-즉, 표제어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확장을 이루는 단계에 이어, 각 세부사항에 주석의 형태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6)의 단계가 뒤따르는데, 실질적인 담론화는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표제어+설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텍스트가 생산된다. 이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표제어는 ‘주제’(theme)로, 이에 대한 서술은 ‘설명어’(rheme)로 바꿔 표현할 수 있으며,<sup>17)</sup> 텍스트 내에서 행하는 기능으로 볼 때 ‘본문’과 ‘주석’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도 있다. 실제 『승람』에는 표제어는 큰 활자로, 설명 부분은 작은 활자로 되어 있어 본문과 주석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주석을 붙임에 있어 이전의 지리서나 시문, 고사나 전설 등 수많은 선행담론이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된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대화의 원리’이다.

『승람』과 『택리지』를 지리박물담론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리서의 특성

- 
- 16) 여기서 ‘확장’은 리파테르의 용어에 의거한 것이다. 리파테르는 텍스트 생산의 두 방법으로서 전환(conversion)과 확장(expansion)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확장은 하나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그것과 환유적 관계에 놓인 사물 및 항목이 열거됨으로써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전환은 반대로 여러 사물들이 열거된 후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핵심어로 전환시킴으로써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Riffaterre, M., *Semiotic of Poetry*(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p. 47-80.
- 17) 이들은 달리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주제나 구정보는 발화의 기반이 되는 것, 발화자가 그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며, 설명어 또는 신정보는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풀이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 및 설명이 추가됨으로써 텍스트가 형성된다. Daneš, Frantisek,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F. Daneš(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The Hague·Paris: Mouton, 1974).



을 가진 동시에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박물관이란 박학다식의 산물로 이전의 수많은 텍스트들을 섭렵하여 거기서 섭취한 지식과 정보를 현행 텍스트 생산의 토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달리 말해 이 담론들의 생산 과정에 바흐친식의 ‘대화원리’<sup>18)</sup>가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리박물관담론은 어떤 형태의 담론보다도 그 성립에 있어 이 대화의 원리에의 의존도가 큰 담론 유형이다.

표제어에 대한 주석의 설명은 크게 ‘지리적 서술’과 ‘문학적 서술’로 나눌 수 있는데, 문학적 서술은 詩와 記가 주가 되며 그 외에 표제어와 관련된 고사, 전설, 일화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승람』의 경우 20여 개 항목 중 건치연혁, 관원, 성씨, 성곽, 토산 등 행정에 관한 것은 지리적 서술만으로 이루어지고, ‘제영’ 항목은 시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지리적 서술과 문학적 서술이 혼합되어 있다. 문학적 서술 중 시는 주로 ‘절구’나 ‘율시’가, 그리고 산문은 ‘기’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시는 일반 항목에 인용된 것과 제영 항목에 수록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이나 소재에 있어 양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先行談論들이 종과 횡으로 얽혀 표제어에 대한 주석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고, 여러 개의 텍스트들이 합쳐져 어떤 항목을 구성한다. 다시 여러 개의 텍스트들을 포함한 항목들 20여 개가 모여 부·군·현과 같은 도시적 단계의 공간에 대한 담론화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담론화의 과정에서 대화의 원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인간의 지각 범위를 넘어선 광대한 공간을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하나의 장소로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이처럼 수 천 여 편의 문학작품과 기존의 지리서가 다양한 양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승람』이라고 하는 거대담론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 1) 지리적 서술과 문학적 서술의 상호관련성

어떤 표제어에 대하여 문학적 서술로써 주석을 붙일 때 전형적인 서술패턴은 ‘아무개의 記(혹은 詩)에 이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여 ‘인용’하는 방식을 취한

18) 바흐친은 어떤 담론이 형성됨에 있어 다른 담론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대화’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이론을 전개했다. 크리스테바는 이를 텍스트 상호관련성(intertextuality)이라는 용어로 확대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T. Todorov/최현무(역), *Mikhail Bakhtin: The Dialogical Principle*(까치글방, 1987).

다. 예를 들면 앞의 ‘변산’이라는 표제어에 대하여 지리적 서술을 한 뒤에 ‘李奎報記’, ‘金宗直詩’라는 문구에 이어 기문이나 시구절을 인용하는 양상이다.

『승람』에 인용된 산문은 ‘기’가 대부분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산문의 문체 분류 중 하나로 사실과 기록성에 입각한 글의 양식이다. 『승람』에서 기는 누각이나 사찰 등 서술대상의 건립계기나 배경을 설명하고, 지명의 유래나 그 곳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등 ‘사실’에 관계된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서술대상의 입지 조건이나 지형적 특징 등을 설명할 때는 묘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문은 산수유기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한 기문은 서술대상에 얽힌 작자의 일화를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주부 ‘寺廟’ 항목의 ‘社稷壇’에 대한 李奎報의 「夢驗記」에는 이규보가 전주에서 司祿 兼 掌書記로 근무할 때 이 사당에 가서 法王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그 대화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신기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기’는 사실과 기록을 중시하는 산문 갈래인 만큼, 지리적 서술을 보충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리적 서술과 기문을 확연하게 갈라놓는 결정적 요소는 서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양자 모두 동일하나, 지리적 서술의 경우 그것을 기술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서술하는 반면, 기의 서술자는 ‘나’의 경험으로서의 사실을 기술한다. 즉, 전자는 철저하게 3인칭적 서술인데 비해, 후자는 1인칭적 서술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만경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지리적 서술과 ‘시’의 관련양상을 보도록 한다.

고덕산 북쪽 산기슭에 있다. 돌 봉우리가 우뚝 솟아 마치 층운을 이룬듯이 보이는데, 그 위에 수십 명이 앉을 만하다. 사면으로 수목이 울창하며 석벽은 그림같이 아름답다. 서쪽으로 群山島를 바라보며 북쪽으로는 箕準城과 통한다. 동남쪽으로는 태산을 지고 있는데 기상이 천태만상이다.

라는 지리적 서술 뒤에 ‘천 길 산등성이에 비긴 돌길을 / 올라오니 품은 감회 이 길 길이 없구나’로 시작되는 鄭夢周의 시구(19)가 인용되어 있는데, 지리적 서술이 비록 문학성을 띠기는 하지만 지리지로서의 기본 서술패턴 즉, ‘~에 ~이 있다’는

문장형태를 유지하여 ‘사실’에 입각한 서술을 행하는 반면, 시는 만경대를 소재로 하여 시인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대상을 두고 지리적 서술에서는 ‘돌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다’고 표현한 반면, 시에서는 ‘천 길 산등성이’라고 하여 산봉우리의 ‘높이’가 천 길이나 된다는 식으로 주관화가 이루어진다. 즉, 전자는 사실지향의 의도의 산물이고 후자는 상상력의 산물인 것이다. 이처럼 위치와 방향에 입각한 지리적 서술과 상상력에 기초한 시적 서술이 상호 작용하여 이들을 단순한 지리서가 아닌, 지리서와 시문선의 성격이 복합된 인문지리서 혹은 문예물로서 특징짓는 것이다.

기호가 갖는 세 기능 중 ‘지시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은 두 기본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지시적 기능이 인간의 ‘이해’ 능력에 관계된다면 정서적 기능은 ‘표현’ 능력에 관계가 된다. 이해력은 객관적·인식적 기능으로서 대상에 작용하는 것이고, 감성은 주체에 작용하는 것이다.<sup>20)</sup> 『승람』에 인용된 문학적 서술 중 ‘기’가 인간의 이해력에 작용하여 표제어-서술대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면, ‘시’는 감성에 호소하여 표제어와 관계된 느낌이나 정서를 환기하는 구실을 한다. 언어표현이 갖는 지시성·사실성의 정도는 지리적 서술>기문>시의 순이라 하겠고 정감성·허구성의 정도는 이 역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승람』의 지리적 서술과 인용된 문학적 서술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리박물관론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띠게 한다.

문학적 서술 중에는 시와 기 외에도 전설, 傳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인물’이나 ‘효자’ ‘열녀’ 항목 중에 傳의 성격을 띠는 서술이 많고, ‘불우’나 ‘고적’ 항목에서는 그 곳과 관계된 전설들이 쉽게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익산현 ‘불우’ 항목의 표제어 중 하나인 ‘미륵사’에는 『삼국유사』 武王 조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설화가 포함되어 있고, 금구현 ‘불우’ 항의 ‘금산사’ 조에는 견훤과 그 아들에 얽힌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정읍현 ‘고적’ 항목 중의 하나인 ‘망부석’ 조에는 백제 가요인 ‘井邑’의 노랫말 일부, 배경설화 등이 서술되어 있음을 본다. 이들은 구비문학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런 표제어에 대해서는 ‘龍華山에 있다’(미륵사)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망부석) ‘모악산에 있는데 후

19) “千仞岡頭石逕橫 登臨使我不勝情.”

20) 박종철(편역), 『문학과 기호학』(예림기획, 1998), 19~20쪽.

백제 견훤이 창건한 것이다(금산사)와 같은 전형적인 지리적 서술 뒤에 ‘세상에 전해져 오기틀(世傳)’ ‘세속에 전해져 오기틀(俗傳)’ ‘일설에 의하면(一云)’과 같은 傳聞句를 제시한 뒤 설화를 소개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같은 전문형 서술은 ‘사실’을 중시하는 지리지의 속성상 사실이라는 확신이 결여될 때, 혹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그 안에 내포된 허구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통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한다.

지리적 서술은 기존의 지식체계에 의존하여 성립된, 일종의 랑그 차원의 기술물로서 화석화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개개인의 담론 즉 시문을 끼워 넣음으로써 화석화된 기술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2) 문학적 서술간의 상호관련성

### ① 일반 항목의 시와 ‘제영’ 항목의 시

『승람』 50권 중 전북지역의 1부,<sup>21)</sup> 1도호부,<sup>22)</sup> 5군, 19현을 대상으로 지역별, 작자별, 詩體別, 제재별 분류를 시도한 연구<sup>23)</sup>에 의하면 총 85인의 시작품 22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항목에 인용된 시와 제영 항목의 시를 합한 숫자이다. 『승람』에 인용된 시편은 누정, 산천, 형승 등 주로 자연경관과 관계된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 항목에 인용된 시는 특정의 누각이나 특정 장소에 대해 읊은 것으로 시의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제영’ 항목의 시는 핵심어 즉 ‘전주부’에 속한 특정 대상이나 장소가 아닌 그 지방 전체의 포괄적 특징을 읊었다는 차이가 있다. ‘제영’ 항의 시는 시 내용 중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구절을 표제어로 삼고 주석의 형태로 시 全文을 수록하는 서술방식을 취한다. 또한 ‘제영’의 시는 그 지방 출신의 문인이거나, 지방관으로 근무했던 사람, 이곳을 여행했던 사람이 지은 것을 취해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영 항목에 수록된 시편의 수는 핵심어 즉, 담론화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그 장소의 유명세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 일반

21) 全州府가 이에 해당한다.

22) 南原都護府가 이에 해당한다.

23) 유흥연, 앞의 논문.

항목의 시와 ‘제영’ 항목의 시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德眞池’는 전주부 ‘산천’ 항목의 표제어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하여,

부의 북쪽 10리에 있다. 부의 지세는 서북방이 空缺하여 전주의 기맥이 이쪽으로 새어 버린다. 그러므로 서쪽으로는 가련산으로부터 동으로 건지산까지 큰 독을 쌓아 기운을 멈추게 하고 이름을 덕진이라 하였으니, 둘레가 9천 73 자이다.

라는 지리적 서술에 이어 ‘깊은 못을 一望하니 푸른 하늘이 비쳐 있네/ 고래로 이 못을 파는 데 몇 사람의 공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風月亭<sup>24)</sup>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시구에 ‘덕진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해도 표제어가 제시되어 있는 이상 전주부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 특정의 연못을 소재로 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 ‘궁실’ 항목의 ‘慶基殿’을 보면,

府城의 남문 안에 있다. 永樂 庚寅年에 태조 강헌대왕의 御容을 봉안하였다. 참봉 2명을 두었다.

라는 지리적 서술 뒤에, ‘성덕을 마땅히 백세에 제사하리니 천추에 廟貌는 단청이 맑으리라’는 柳洵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어용을 봉안했다’고 하는 지리적 서술과 상호작용하여 이 구절이 전주부에 위치한 특정 건물 즉 경기전을 소재로 했음이 명시된다. 말하자면 이 시구들은 연못이나 전각 일반에 대해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부 내에 있는 어느 특정의 연못과 전각에 대해 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주부의 ‘제영’ 항목에 수록된 시는 총 8수인데 그 중 權近의 시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이 시의 제목은 ‘送完山府尹尹公坤’으로 시체는 5언율시인데 『승람』에 인용된 것은 앞의 4구이다. 시의 제3구에 해당하는 ‘千年鍾王氣’를 표제어로 한 뒤에 ‘큰 고을이 남과 북을 갈라 놓으니 / 完山이 가장 특기하도다 / 천년의 왕기가 모여 있으니 / 일대의 큰 터전을 열었구나’<sup>25)</sup>라는 前半 4구를 인용하였

24) 月山大君을 가리킨다.

25) 시 전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巨鎮分南北 完山最是奇 千年鍾王氣 一代啓鴻基 舊俗還淳日 勳臣出宰時 贈言慚鄙拙 聊以慰吾思.”

다. 시 구절 중의 ‘완산’은 전주부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면서 권근이 활약하던 여말선초 당시 전주부의 이름이기도 하다.<sup>26)</sup> 만약 이 시가 전주부 ‘산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완산’은 전주에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의 경우 ‘완산’은 앞부분의 ‘큰 고을’에 상응하는 대상이므로 산이 아닌, 전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는 ‘千年鍾王氣’를 표제어로 한 것으로 보아,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 이씨라는 사실을, 전주부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인상 혹은 특징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 항목 속의 시가 특징의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제영 항목의 시는 그 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를 주지로 하여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② 기문과 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승람』에 인용된 문학적 담론 중 산문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記’이다. ‘기’는 사실성과 기록성, 객관성을 중시하는 산문 양식이기에 문학적 담론보다는 지리적 서술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승람』의 기문은 누각이나 사찰, 건물 등의 건립연혁이나 배경, 유래 등 ‘사실’에 관계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산천’ 항목에 인용된 것은 山水遊記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같은 대상을 두고 기와 시로 표현한 것을 비교해 보면 상이한 두 문학양식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론화하는 지 알 수 있다. ‘濟南亭’을 예로 들면, ‘성의 남쪽 시냇가에 있다’는 지리적 서술에 이어 다음과 같은 洪汝方의 기문과 盧思愼의 시가 인용되어 있다.

계축년 봄에 이곳의 부윤으로 와서 하루는 과업을 권장하러 남문을 나섰는데 東川 가에 누가 있고 한 쪽에 고인의 詩板이 있으며, 또한 牧隱 선생이 남겨 놓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것을 다시 세울 생각을 가졌다. 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재물을 모으고 있는 중, 갑인년 가을에 나는 병으로 면직이

26) 『승람』 전주부의 ‘건치연혁’ 항을 보면 전주는 고려 현종 때는 全州牧으로 불리다가 공민왕 5년에 完山府로 개칭되었다. 조선 태조 원년에는 完山留守府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3년에 全州府로 바뀌었다.

되고, 같은 해에 趙從生 공이 대신 와서 나의 뜻을 이어서 경영을 하며, 제도를 넓히고 단청을 선명하게 하여 그 오른 편에 松柏을 심어 놓으니, 실로 帝鄉의 뛰어난 경관이더라.

다리의 남쪽 북쪽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니  
 날마다 수레와 말발굽이 여기를 향하고 여기를 지나가네  
 높은 정자가 강가에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이 아니 취하고 어이하리<sup>27)</sup>

기문은 흥여방이 체남정을 증수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시는 그 정자에 임하여 일어나는 흥취와 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문이 정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시는 ‘느낌’을 중심으로 한다. 전자에 정자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담겨 있다면, 후자에는 상상력에 기반한 주관적 시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기문을 지리적 서술과 비교해 보면 지리적 서술이 ‘나’를 결여한 철저한 객관적 서술임에 반해, 기문은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의 존재가 개입해 있어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함유한 서술임이 드러난다. 이 점은 양자를 문학과 비문학의 영역으로 갈라놓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처럼 기문과 시는 상보적인 관계 하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주석의 형태로 이해한 것과 느낀 것을 서술하여 대상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고 공간을 장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앞서 하나의 표제어와 이에 대한 서술을 갖춘 것을 ‘텍스트’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체남정’을 하나의 텍스트로 볼 때, 이 텍스트는 ‘체남정’을 제목 및 본문으로 하고 기문과 시를 합한 설명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형 혼합담론’에 속한다. 여기서 혼합담론이란 하나의 텍스트에 산문과 운문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sup>28)</sup> 주석형은 어느 한 쪽이 본문이 되고 다른 한 쪽은 그에 대한 주석

27) “橋南橋北送迎多 日日輪蹄向此過 可是高亭江上在 幾人登眺醉無何.”

28) 구체적인 논의는 신은경, 「散·韻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秋齋紀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2008a)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혼합담론을 序부가형, 주석형, 열전형, 시삽입형, 시화형, 복합형의 여섯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주석형의 경우 대개는 운문이 본문을 이루고 산문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韻主散從’ 형태가 일반적이다. 주석형 혼합담론의 예로 『韓詩外傳』과 『法句比喻經』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것은 신은경, 「『韓詩外傳』과 『法句比喻經』의 비교 연구」, 『비교문학』, 45집(2008b)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텍스트를 엮어 짜는 유형을 가리킨다. 그런데 『승람』의 경우 다른 주석형 혼합담론과는 달리 시와 기문이 상호결합하여 본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주석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서술방식은 『승람』 편찬의 직접적 모델이 된 송의 『방여승람』과 명의 『일통지』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 국토 강역이라고 하는 광대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인 지리공간을 담론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논의를 요약하면 지리공간의 담론화과정은 한 마디로 ‘공간의 장소화’와 맞물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의 비교

#### 1. 『승람』과 『택리지』의 同異點

앞 장에서는 『승람』을 중심으로 전국 강토의 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몇 단 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택리지』는 개인의 저술이므로 방대한 官撰地理書인 『승람』과는 전체 체제나 분량, 서술방식 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국토 강역이라는 광대한 공간을 담론화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리서이면서 시문이나 고사, 설화 등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람』과 공통의 분모를 가진다. 담론화의 기본적인 원리 또한 『승람』과 대동소이하다.

『택리지』는 백성들의 부류를 넷으로 나누어 그들의 삶의 형태를 논한 사민총론을 포함한다는 점, 궁극적으로 지리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서술의 행간에서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이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리공간만을 담론화의 주 대상으로 한 『승람』과 서술방향에 있어 시각차를 보인다. 이 점은 『택리지』나 『승람』이나 모두 지리박물담론의 형태이면서도 『택리지』가 좀 더 인문지리서적인 성격이 강한 텍스트로 인식되는 요인이 된다. 서술면에서도 『승람』은 본문과 주석의 이원화를 피하고 있는 반면 『택리지』는 인용한 내용까지 모두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담론 형성의 원리를 살핌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팔도총론」과 「북거총론」이다.



「팔도총론」에 주목해 보면, 『승람』의 경우 실질적인 서술단위는 ‘군현’인데 비해 「팔도총론」은 ‘도’ 단위에서 서술이 행해진다. 『택리지』는 『승람』처럼 서술단위에 대하여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해당 도의 건치연혁, 유래, 역사, 인물, 산천, 풍속, 토산, 물자, 주요 도시, 촌락, 주요한 성곽, 명승지, 사찰 등을 두루 두루 개괄하고 있다. 이중환 자신도 발문에서,

내가 黃山江 가에 머무르던 무렵, 무료한 여름날에 八卦亭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술한 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천, 인물, 풍속, 정치 교화의 연혁, 치란득실의 잘하고 못한 것들을 차례로 엮어 기록한 것이다.<sup>29)</sup>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비록 『승람』에 비해 소략하기는 하지만 『승람』의 주요 항목의 내용을 대개 포괄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환 또한 지리공간을 담론화함에 있어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장소화하는 기준의 설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이다.

이에 비해 「복거총론」의 경우는 ‘살 만한 곳’(可居地)으로서 지리·생리·인심·산수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데, ‘지리’는 물이나 땅의 형세 등 지형적 조건을 말한 것이고, ‘생리’는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인심’은 사람들의 성품과 그 곳의 풍속을 말한 것이며, ‘산수’는 주변경관을 말한 것이다. 앞의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주변경관이 볼 것이 없으면 살 만한 곳이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산수’의 조건을 넣은 것이다. 이는 작자 이중환이 쏘 국토 강역이라고 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살기 좋은 곳’의 기준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장소화와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가 말하는 ‘가거지’란 ‘살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막연한 이미지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하여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장소로서 구체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택리지』는 개인의 저술이기 때문에 『승람』처럼 항목별로 여러 개의 표제어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서술단위, 즉 핵심어에 대하여 인접적 확장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라도’를 예로 들 때 『택리지』의 경우 이를 핵심어라 할

29) 이익성(역), 『擇里志』(을유문화사, 1971), 275쪽.

수 있으며, 이 핵심어와 전라도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지식-건치연혁, 유래, 역사, 풍속 등등-간에는 전체와 부분이라는 인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서술의 단위와 규모만 다를 뿐이지 구체적 정보를 모아 하나의 텍스트로 확장해 가는 원리는 『승람』과 같다.

뿐만 아니라 전대의 각종 선행담론을 서술의 근거 혹은 전제로 하면서 이를 군데군데에 엮어 짜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대화의 원리’ 또한 『택리지』라는 담론 형성의 주요 원리가 된다. 다만 주석의 형태로 각종 선행담론을 인용하는 『승람』과는 달리, 『택리지』는 서술의 군데군데에 삽입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지리박물담론의 두 양상

『승람』은 방대한 내용에 다양한 항목들을 수록해야 하므로 서술방식은 기본적으로 나열과 부연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백과사전적 서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승람』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보완과 수정, 증보를 거듭하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관찬지리지라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승람』은 여타 지리지처럼 서술자 혹은 집필자들이 전 국토를 발로 답사하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체계에 의존하여 성립된, 일종의 랑그 차원의 기술물이므로 ‘나’라고 하는 사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 서술로 일관된다.

이에 비해 『택리지』는 작자 이중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견문한 바에 의거해 집필한 것이므로 서술 주체인 ‘나’의 생생한 경험과 느낌이 담겨 있는 주관적 기술물의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지식의 나열로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는 『승람』과는 달리, 『택리지』는 전 국토를 답사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총체적으로 서술하였기에 ‘수필’의 요소와 ‘기행문’ 그 중에서도 ‘산수유람 기행문’의 요소를 갖춘 독특한 담론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이런 특징은 특히 「복거총론」의 ‘산수’ 항목에서 부각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의 경승지에 대

30) 기행문의 종류 및 산수유람기와 산수유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은경, 「紀行文의 插入詩 研究」, 『東洋學』, 45집(2009) 참고.

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산수유기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 점은 이 책이 달리 『東國山水錄』으로도 불린다는 사실로써도 뒷받침된다. 예를 들면 금강산에 대하여,

내가 본 것과 들은 바를 참고하면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은 순전히 돌봉우리, 불구렁, 돌내, 돌폭포이다. 산봉우리·골짜기·샘·못·폭포가 모두 흰 돌이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강산을 개골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움큼의 흙도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만 길 산꼭대기와 백 길 못까지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풍경은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다. 산 가운데 正陽寺가 있고, 그 안에 歇惺樓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여 그 위에 앉으면 온 산의 참 모습과 참 정기를 느낄 수 있다. 마치 아름다운 구슬 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맑은 기운이 상쾌하여 사람의 腸胃 속 먼지를 어느 틈에 씻어내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이다.<sup>31)</sup>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독자는 이중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금강산의 주변 경관에 감탄하는 그의 모습을 직접 대하게 된다. 1인칭 문학으로서 기행수필이 지니는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비유법의 잦은 활용도 『택리지』의 서술을 주관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지리공간을 담론화한 언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분모를 지니는 두 저술이 집필의 주체, 경험의 직접성 여부, 서술의 시각차 등에 따라 하나는 ‘백과사전형 지리박물담론’으로, 다른 하나는 ‘기행문형 지리박물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승람』의 기문과 시는 상호 보완적으로 주석의 형태를 이루어 본문의 내용을 부연하므로 일종의 ‘散·韻 혼합담론’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문서술과 시가 혼합되어 텍스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택리지』도 ‘산·운 혼합담론’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승람』의 경우 기문과 시 중 어느 하나가 주가 되고 다른 것이 종이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두 요소가 상호 대등하게 보완을 하면서 주석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 『택리지』의 경우는 산문이 주가 되고 시가 종이가 되는 散主韻從의 성격을 띤다.

31) 번역은 이익성(역), 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절-浮石寺-뒤편에 있는 聚遠樓는 크고 넓어, 아득한 것이 하늘과 땅의 한복판에 솟은 듯하고 기세가 웅장하여 경상도를 위압할 듯하다. 벽 위엔 퇴계의 시를 새긴 현판이 있다. 내가 계묘년<sup>32)</sup> 가을에 승지 李仁復과 함께 태백산에 놀러 갔다가 이 절에 들어 드디어 퇴계의 시에 차운하였다. “아득히 높은 다락집 열 두 난간에 / 동남쪽 천 리 지역이 눈앞에 보인다 / 인간 세상은 아득하디 아득한 신라국인데 / 하늘 아래에 깊고 깊은 태백산이다 / 가을 구렁에 어두운 연기는 나는 새너머로 피어오르고 / 해협에 남은 높은 어지러운 그림 끝에 비친다 / 가도 가도 위쪽 절에는 닿지 못하니 / 예부터 행로의 어려움을 어찌 알소냐.” 또 시 한 수를 지었다(시는 생략).

위 구절은 「복거총론」 중 ‘산수’ 항의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이중환이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산문 속에 삽입되는 양상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는 ‘시삽입형 혼합담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sup>33)</sup>

『택리지』에는 이중환 자신이 지은 한시 4수를 포함하여 총 17수의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복거총론」의 산수 항에는 12수의 한시가 집중적으로 삽입되어 있어 산수 항의 글을 한 편의 산수유람 기행문 혹은 장편의 산수유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글 속에 시를 삽입하는 것은 기행문이나 산수유기의 보편적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IV. 『신증동국여지승람』·『택리지』의 성립과 『水經注』

『동국여지승람』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문이나 발문들을 보면 이 책이 송의 『방여승람』과 명의 『일통지』의 체제를 본받아 집성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앞장에서 『승람』의 개개 텍스트가 하나의 표제어에 대하여 ‘지리적 서술’과 ‘문학적 서술’이 결합하여 주석 형태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방여승람』과 『명일통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중 특히 『명일통지』의 영향은, 『大明一統志詩詠集類』라는 책이 종종 38년

32) 여기서 말하는 계묘년은 1723년이다.

33) 신은경, 앞의 논문(2008a).

(1543)에 간행<sup>34)</sup>된 것만 보아도 명백히 드러난다.

『방여승람』과 『명일통지』의 서술방식을 보면, 국토 강역을 구체적인 행정단위로 구획한 다음 서술의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선정하여 그것을 표제어-혹은 본문-로 삼은 후 지리적 서술과 기존의 시문들을 인용하여 주석의 형태로 표제어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승람』과 중국의 두 지리서는 그 체제나 서술방식면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단 항목의 설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의 수에 각각 차이가 있을 뿐이다.<sup>35)</sup>

한편 『방여승람』이나 『명일통지』보다 먼저 나온 지리서로서 北宋 때의 樂史가 저술한 『太平寰宇記』가 있는데 이 또한 지리서에 시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여러 저술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지리서는 몇 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고는 있지만 본문과 주석의 이원화를 피하지 않고 본문으로만 일원화하면서 시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승람』의 성립의 직접적 모델이 된 것은 『방여승람』과 『명일통지』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리박물담론으로서 『승람』과 『택리지』의 기원은 『山海經』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박물담론이란 ‘~이 ~에 있다’와 같이 위치와 방위에 입각한 문장을 기본 서술패턴으로 하여 온갖 잡다한 지식과 광범한 정보를 수록한 담론 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데, 『산해경』은 보통 그 효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神異經』, 『十州記』, 『博物志』 등으로 이어져 중국 고유의 서사적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고 설명된다.<sup>36)</sup> 『산해경』은 「산경」과 「해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작위로 문장을 추출해 보면,

다시 동쪽으로 380리를 가면 원익산이라는 곳인데 산 속에는 괴상한 짐승이 많이 살고 물에는 괴상한 고기와 백옥이 많으며 살모사와 괴상한 뱀, 괴상한 나무들이 많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다시 동쪽으로 370여 리를 가면 유양산이라는 곳인데 그 남쪽에서는 붉은 금이, 북쪽에서는 백금이 많이 난다.<sup>37)</sup>

34)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0·2002), 9쪽.

35) 이 지리서들 간의 항목체제 비교는 정의성의 앞의 글에서 자세히 이루어졌다.

36) 김지선, 앞의 논문; 정민경, 앞의 논문.

와 같이 위치와 방위에 입각하여 특정 장소를 제시하고 그 곳의 특성을 서술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서술은 분명 『승람』에 보이는 지리적 서술의 원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상이라도 조부·증조부·고조부와 10대조, 그리고 20대조가 후손에게 갖는 의미와 영향은 각각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해경』이나 『신이경』, 『십주기』, 『박물지』 등 초기의 지리박물담론이 『승람』 성립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겼을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리박물담론 중 『승람』과 『택리지』가 갖는 의미는 시문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들 초기 지리박물담론에는 시문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sup>38)</sup> 따라서 이 초기 텍스트들이 『승람』과 『택리지』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때 먼 조상으로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시문이 있는 지리박물담론 형성의 직접적 원천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본다.

지리박물담론에 근원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 한 개인의 입장과 목소리가 담긴 문학텍스트로서의 시문이 인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北魏 酈道元(465?~527)<sup>39)</sup>이 저술한 『수경주』에서부터이다. 이 또한 『산해경』의 영향으로 성립된 지리박물담론인데, 『산해경』 및 지리박물담론의 기본적인 서술패턴을 유지하면서 역대의 고사, 전설, 신화, 부, 시, 기, 가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저술이다. 『수경주』는 前漢의 經學者인 桑欽<sup>40)</sup>이 지은 『수경』에 역도원이 주석을 가한 것이다. 그런데 여느 주석서와는 달리, 585자 57조에 불과한 양에 137개 물줄기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수경』 원문에 무려 1,252개의 지류를 소개하고 480여 종의 도서를 참고 및 인용하여 20배에 달하는 분량의 주를 붙이고 있다.<sup>41)</sup> 분량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석문이 취한

37) 정재서(역주), 『산해경』(민음사, 1985·2007), 53쪽.

38) 여기서 말하는 시문이란 작자와 출처가 분명한 문학텍스트 다시 말해 개인적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설화적 성격을 띠는 이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西晉의 張華(232~300)가 저술한 『박물지』 「雜說」편에는 구비문학적 성격을 띠는 설화나 간단한 이야기가 몇 편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적 글쓰기의 소산으로서 문학성을 띠는 시문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39) 역도원의 사망연도는 史書에 분명히 527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485년설, 465년설, 472년설, 469년설 등 매우 다양하다. 森鹿三·日比野丈夫(譯), 『水經注』(抄)(東京: 平凡社, 1974·1987), 해설. 『수경주』는 515년에서 524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40) 『수경』의 작자에 대해서는 異說이 분분하나 본고에서는 『唐六典』의 기록에 의거하여 상흠을 작자로 보는 설을 따른다.

‘述而不作’의 태도 즉 원문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설명을 하되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창의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 중 하나이다. 문체 또한 『수경』이 물줄기의 흐름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한 것에 비해 『수경주』는 시문, 부, 가요, 신화, 전설, 고사 등 다양한 문학적 담론을 곁들여 주석을 가한 것이어서 단순한 주석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동시에 문학성이 강한 지리박물담론의 성격을 띤다.

『河水篇』 卷一42)의 한 예를 들어 보면, ‘하수는 다시 바다 밖으로 흘러나가 남쪽으로 향하여 적석산에 이르는데 산의 아래에 石門이 있다’43)는 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문을 붙이고 있다.

- (1) 『山海經』에 ‘하수는 발해로 들어가서 다시 바다 밖으로 흘러나가 서북쪽을 향하여 禹임금이 물길을 통하게 한 적석산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였다. 적석산은 隴西郡 河關縣의 서남 羌中에 있다. (2) 내가 상고하건대 여러 책에는 모두 河水는 崑崙에서 나와 重源으로부터 땅속을 빠져나가 蒲昌海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洛書』에 ‘河水는 崑崙에서 나와 重野로 나간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적석산을 지나서 中國의 河가 된다. (3) 그러므로 成子安의 <大河賦>에서는 “百川의 굉장한 모습을 보아도 / 黃河보다 아름답지 않다 / 험준한 崑崙산 아래로 빠져나가 / 우뚝한 적석산으로 흘러가네”라고 읊고 있다. (4) 『釋氏西域記』에서는 ‘하수는 포창해로부터 지하로 빠져나가 남쪽의 적석산으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5) 따라서 『水經』의 본문에 여기서 적석산을 기재한 것은 맞지 않으며 포창해의 조목44)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주석문을 검토해 보면 (1)은 본문의 내용에 입각하여 그 보충 설명을 한 지리적 서술이고, (2)이하의 내용은 본문과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부분이다. 그 중에 成子安(231~273)의 賦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41) 전주현, 「酈道元『水經注』試論: 신화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5-6, 16쪽.

42) 河水는 黃河를 가리킨다.

43) “又出海外 南至積石山 下有石門.”

44) 蒲昌海는 『河水篇』 卷二 두 번째 본문에 나온다. ‘又出海外 南至積石山 下有石門’이라는 본문은 이 뒤에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역도원의 견해이다.

주석문에 기존의 문학적 담론을 수용하는 양상에 대하여 『승람』과 『수경주』를 비교해 보면, 표제어 형식의 본문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치와 방위에 입각한 지리적 서술 그리고 시와 기문 등 문학적 서술이 합하여 주석문을 이룬다는 점에서 양자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택리지』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승람』과 『수경주』는 본문과 주석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택리지』는 주석과 본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여 서술해 나간다는 차이가 있고, 앞의 두 저술에 비해 기존의 선행담론을 인용하는 빈도수가 적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택리지』 저술에 있어 선행담론에의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말하고, 환언하면 자신의 입장과 견해, 목소리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2)의 ‘내가 상고해 보건대’(“余考”)라는 구절이다. 이는 작자가 ‘余’라는 1인칭 서술자로 문면에 개입하고 있는 증표가 된다. 이로 볼 때 『수경주』가 지닌 ‘선행담론의 잦은 인용에 의한 철저한 고증’과 ‘자기주장의 피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서술태도 중 『승람』에서는 전자의 관점이, 그리고 『택리지』에서는 후자의 관점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승람』은 여러 사람에 의해 찬술된 관찬 지리서이고 『택리지』는 개인의 저술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동국여지승람』 및 그 증보판의 서문이나 발문, 箋 그 어디에서도 『수경주』의 체제를 참고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상 본 바와 같이 『승람』, 『택리지』와 『수경주』는 텍스트 자체적으로 큰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지리박물담론으로서 『승람』과 『택리지』에 있어 『산해경』은 시조, 『방여승람』과 『명일통지』는 가장 가까운 조상인 조부나 증조부 격에 해당한다면, 『수경주』는 그 中始祖 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승람』이 이들 선조들의 직계 후손이라면, 『택리지』는 방계 후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수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널리 읽힌 책은 아니다. 이 책은 『尙書』 「禹公」, 『周禮』 「職方解」, 『漢書』 「地理志」 등 그 이전의 지리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물질을 명백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으로 통치자의 시각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개개인의 문인들에게 이 책이 애독되었으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丁若鏞(1762~1836)이 1789년 실시된 내각 親試에 제출한 「地理策」이라는 글에서 기존의 지리서가 지닌 문제점



을 제기하고 ‘박학한 선비를 선발하여 상흥의 『수경』과 역도원의 『수경주』를 본떠 『東國水經』 한 책을 편찬’하라는 건의를 한 것, 그리고 결국 수십 년 뒤 제자의 注가 덧붙여진 『大東水經』이 편찬된 것<sup>45)</sup>으로 미루어 『수경주』가 지닌 문화적 과정이 그리 작지 않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수경주』와는 달리 『대동수경』에서는 시문의 인용을 대폭 생략하였는데, 이는 위 「지리책」에서 『동국수경』의 체제와 관련하여 ‘효자·열녀 등 인물은 아주 뛰어나 세상에 다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생략하고, 題詠에 있어서는 백에 하나 정도만 남김으로써 규례를 엄격히 하여 편찬해야 한다’고 한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여기서 지리박물담론의 祖型으로서 『산해경』을, 지리박물담론 중에서도 개인의 시문이 있는 것의 조형으로 『수경주』를 상정하고<sup>46)</sup> 후자를 다시 『승람』과 같은 ‘백과사전형’과 『택리지』와 같은 ‘산수유람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약용의 『대동수경』은 책의 편찬 의도와 書名은 『수경주』를 따랐지만, 역대 시문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경주』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수경주』는 적지 않은 부분이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중국 유기문학의 원조로 간주된다.<sup>47)</sup> 본문에 나와 있는 물줄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득이 실지답사가 필요해진다. 『수경주』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보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실지답사에 의해 관찰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어<sup>48)</sup> 유기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范文瀾의 『水經注寫景文鈔』에는 산수유기로 볼 만한 텍스트 286조목이 수록<sup>49)</sup>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보통 ‘江水’조의 「三峽」이 꼽힌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45) 양보경, 「조선 후기 하천 중심의 국토인식: 『대동수경』 『산수심원기』 『산행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음), 『우리 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논형, 2003).

46) 개개인의 시문은 아니지만, 고대의 신화나 전설, 기타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문학적 담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박물지』가 그 始祖가 된다.

47) 森鹿三·日比野丈夫(譯), 앞의 책, 해설; 임중욱(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범우사, 1997), 678쪽; 陳必祥/심경호(옮김), 『한문문체론』(이회, 1995·2001), 125쪽.

48) 森鹿三·日比野丈夫(譯), 앞의 책, 해설.

49) 전주현, 앞의 논문, 22쪽에서 재인용.

그 사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160여 리를 일리 巫峽이라 하는데, 산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三峽 700리 안 양쪽 기슭에는 산이 이어져 있는데 조금도 끊어진 곳이 없다. 겹겹의 바위 절벽과 층층의 가파른 산들이,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로 막아 정오나 한밤중이 아니면 해와 달을 보지 못한다. (中略) 봄과 겨울철에는 새하얀 급류와 질푸른 연못에 맑은 물결이 맴돌고 산의 그림자가 물속에 거꾸로 비치며,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에는 괴이한 잣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높은 절벽 위에 걸린 폭포수가 그 사이로 날아 떨어져 부딪힌다. 청초한 꽃과 높이 자란 나무는 정말 멋이 있다. 맑은 날 서리 내린 아침이면 숲은 차갑고 계곡물은 적막이 감돈다. 늘 높은 곳에 사는 잔나비들이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매우 처량하게 계속 이어지며 텅 빈 계곡에 메아리쳐 구슬프게 맴돌다가 한참 지나서야 사라진다. 그래서 어부의 노래에 이르기를 “巴東의 三峽에서 巫峽이 가장 기니, 잔나비 세 번 울음 소리에 눈물이 옷을 적시네”라고 했다.

위 구절을 앞의 Ⅲ장 2절에서 예를 든 『택리지』의 구절과 비교해 보면 지명의 유래로부터 시작하여 산수 묘사의 정밀함이나 생생함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수경주』는 지리박물담론의 중시조 혹은 시문이 인용된 지리박물담론의 시조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산수유기문학의 원조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그렇다면 『승람』과는 달리 산수유기의 성격이 강한 『택리지』의 서술 특히 「복거총론」 ‘산수’항의 서술은 『수경주』를 그 조형으로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V.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의 문화사적 의의: 맺음말을 겸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는 지리공간을 담론화했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의 문학담론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리서와 문학의 경계영역에 위

50) 『산해경』은 산수유기의 濫觴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유기문학이라 할 수는 없다. 陳必祥, 앞의 책, 105쪽.

치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이런 언술 형태를 ‘지리박물담론’이라는 말로 포괄하여, 지리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제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두 저술이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검토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왕이 흥할 때에는 모두 版籍의 편찬이 있었습니다’라고 『승람』의 箋文에서 盧思愼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왕권이 안정되고 문물이 흥성할 때 여러 집성적인 저술이 편찬된다. 세종~성종 연간은 조선 전기에 왕권의 안정과 문물의 융성을 보인 시기이다. 특히 성종 때는 『승람』을 비롯, 역대 시문을 모은 『동문선』, 삼국과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東國通鑑』, 그림을 곁들여 음악을 정리한 『악학궤범』 등 수많은 저술이 집대성되었다.

한 나라의 지지 편찬이 제왕이 흥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승람』의 편찬동기를 王化를 계승·전수하고, 전성기 조선의 실태와 전모를 파악하며, 위정자가 정사를 도모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을 마련하며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sup>51)</sup>는, 『승람』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승람』은 통치의 수단 혹은 행정의 지침서로 기능함과 동시에 ‘효자’ ‘열녀’와 같은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백성 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조선왕조 지배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승람』에 제영 항목을 둔 것에 대해 ‘물상을 읊조리며 王化를 노래하여 칭송하는 것은 실로 시와 문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 徐居正의 서문은 이와 같은 편찬의도를 직접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승람』의 기획자, 편찬자, 궁극적인 독자는 王을 포함하여 모두 지배층 인물들, 다시 말해 정치권력 혹은 통치행위의 핵심에 놓인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조선 후기를 전기와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통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담당층<sup>52)</sup>이 확대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승람』은 조선 전기의 상층 중심의 문화활동이 집대성된 결과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조선 전기 문화예술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것이다.

한편, 『택리지』는 이중환이라는 조선 후기의 한 불우한 지식인에 의해 저술되었

51) 李演載, 앞의 논문.

52) 여기서 ‘문화담당층’이란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수용자·소비자·향수자·패트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다는 점에서 『승람』과 대조를 이룬다. 저자인 이중환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1713년 젊은 나이에 과거급제를 한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사회에 연루되어 1725년 유배길에 오른 이래 1727년 해배된 후 생을 마칠 때까지 30년 가까이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해배된 후 수십 년 동안 변변한 거처 하나 없이 전국을 떠돌며 지내다 생을 마쳤다. 그는 별죽한 명문가 출신 양반이요 지식인이었지만 결코 통치행위를 주도하는 권력층에는 속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인물이었다. 그가 『택리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可居地’ 즉 사람이 살 만한 곳은 四民-士·農·工·商-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 특히 자의든 임금에 의해 내침을 당했던 간에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거처할 만한 곳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丁若鏞도 발문에서 ‘택리지 한 권은 故 正字 이중환이 지은 것으로서, 나라 안 사대부들의 장원 중 아름다운 곳과 나쁜 곳을 논한 것’<sup>53)</sup>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睦會敬 또한 발문에서 사대부의 거처에 대해 ‘벼슬을 할 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서울의 대궐 문밖이 적당하고 초야에 물러나 살 때는 유명한 도회나 큰 읍에 아름다운 산과 물이 서로 모인 곳에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택리지』는 벼슬길에 다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던 이중환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위로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권력의 밖에 존재하던 사대부 지식인에게 이상적인 거처로서 가거지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향’은 현실세계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곳이기에 이상향으로 붙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닌다. 이중환 또한 『택리지』에서 가거지의 기준을 제시하면 서도 곳곳에서 팔도 강역에는 마땅히 살 만한 곳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조선 전기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대부들이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다시 말해 통치행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리서인 『승람』을 편찬한 것이라면, 이중환이 『택리지』를 저술한 것은 조선 후기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불우한 지식인이 자위의 방편으로 혹은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이상적인 거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저술은 큰 대조를 이룬다. 그러기에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승람』에서는 건치연혁·학교·토산·형승

53) 이익성(역), 앞의 책, 282쪽.

등과 같이 지배층의 통치행위와 직결된 것이 설정되어 있고,<sup>54)</sup> 『택리지』에서는 지리·생리·인심·산수와 같이 한 개인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 실질적 기반이 되는 요소가 가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승람』과 『택리지』는 편찬 주체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빚어내기도 하지만, 두 저술이 생산된 조선 전기와 후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또한 차이를 야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전기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단일한 통치이념이 그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는 시대였고, 조선 후기는 전통적인 성리학을 비롯, 실학, 동학, 서학, 고증학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조선 후기는 정신적 가치만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 또한 중시되던 시기였다. 이중환이 말하는 ‘生利’란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역시 조선 후기적 가치관, 특히 실학적 입장의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鄭道元, 『水經注』. 世界書局, 출판연대불명.
- 森鹿三·日比野丈夫(譯), 『水經注』(抄). 東京: 平凡社, 1974·1987.
- 『국역 新增 東國輿地勝覽』IV(慶尙道·全羅道 篇). 민족문화추진회, 1976·1989.
- 李重煥/이익성(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1971.
- 정재서(역주), 『산해경』. 민음사, 1985·2007.
- 국사편찬위원회(편), 『조선왕조실록』. 탐구당, 1982.
- 김지선, 「魏晉南北朝 志怪의 敘事性 研究」.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2002.
- 박중철(편역), 『문학과 기호학』. 서울: 예림기획, 1998.
- 신명주, 「<관동별곡>과 『신증 동국여지승람』 集錄 한시문과의 관련 양상」.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4) 이런 항목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徐居正은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연혁은 한 고을의 흥하고 폐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풍속은 한 고을을 유지하는 것이며, 형승은 그 고을의 四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고, 廟祠는 祖宗을 높이는 의도이며 학교는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므로 중요하고 사찰은 역대로 그 곳에서 복을 빌었기 때문이며 토산은 貢賦가 나오는 원천이고 院宇는 행려를 쉬게 하고 도적을 막는 구실을 하며, 누대는 때에 따라 늘며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은경, 「散·韻 혼합담론의 유형과 양상: 『秋齋紀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집, 2008a.

신은경, 「『韓詩外傳』과 『法句比喻經』의 비교 연구. 『비교문학』 45집, 2008b, 51~74쪽.

신은경, 「紀行文의 挿入詩 研究. 『東洋學』 제45집, 2009.

안휘준, 「옛지도와 회화. 한영우·안휘준·배우성(공저),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형 출판사, 1999.

양보경, 「조선후기 하천 중심의 국토인식: 『대동수경』 『산수십원기』 『산행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음), 『우리 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서울: 논형, 2003.

유풍연, 「동국여지승람 소재 한시 연구. 『郷土文化研究』 제6집, 1990, 5~69쪽.

이경우, 「문학의 주제로서의 지리공간: 『택리지』를 중심으로. 『승려어문학』 제1집, 1984.

李演載, 「東國輿地勝覽의 文學的 性格. 『건국어문학』 19, 1995, 239~262쪽.

임종욱(역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범우사, 1997.

全胄賢, 「鄺道元 『水經注』 試論: 신화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민경, 「중국 地理博物體 서사의 형성과 전개. 『민족문화사연구』 30집, 2006, 102~125쪽.

정의성, 「『新增 東國輿地勝覽』의 項目體裁와 ‘題詠’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권 4호, 1997, 19~33쪽.

황정선, 「擇里志에 나타난 自然觀. 『地理學研究』 제20집, 1992.

陳必祥/심경호(옮김), 『한문문체론』. 서울: 이화, 1995·2001.

C. Norberg-Schulz/김광현(역), 『實存·空間·建築』. 서울: 泰林文化社, 1991.

『太平寰宇記』1·2. 『文淵閣四庫全書』 第469·470冊. 臺灣: 商務印書館

『方輿勝覽』. 『文淵閣四庫全書』 第471冊. 臺灣: 商務印書館

『明一統志』1·2. 『文淵閣四庫全書』 第472·473冊. 臺灣: 商務印書館

Daneš, Frantisek,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F.

Daneš(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The Hague · Paris: Mouton, 1974.

Riffaterre, M., *Semiotic of Poet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T. Todorov/최현무(역), *Mikhail Bakhtin: The Dialogical Principle*. 서울: 까치글방, 1987.

Tuan, Yi-Fu,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1977.

Tuan, Yi-Fu, “Space, Time, Place: A Humanistic Frame.” *Timing Space and Spacing Time* Vol.1,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8.

### 국문 요약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는 지리공간을 담론화했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의 문학담론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는 이런 언술 형태를 ‘지리박물담론’이라는 말로 포괄하여, 지리공간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나라, 道 등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공간’과 여기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구체적인 개념인 ‘장소’를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본다면 지리공간의 담론화 과정을 살피는 일은 곧 공간이 장소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제1단계, 핵심어와 표제어에 대한 환유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제2단계, 그리고 기존의 지리서 및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담론들을 인용하여, 한 표제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이루어지는 제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바흐쎈 개념의 ‘대화원리’가 작용한다.

『승람』과 『택리지』는 위와 같은 기본원리에 의해 성립된 지리박물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가 ‘백과사전형’의 성격을 띠다면, 후자는 ‘기행문형’의 성격을 띠는 차이를 지닌다. 이 차이는 전자가 관찰 지리서이고 후자는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개인의 저술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본고는 『승람』과 『택리지』의 가장 최초의 근원이 되는 祖型으로 『산해경』을, 지리박물담론에 시문을 수용한 형태의 조형으로서 『수경주』를, 그리고 『승람』형식의 직접적 모델이 된 것으로서 송의 『방여승람』과 명의 『일통지』를 제시했다.

● 투고일 : 2009. 1. 12.      ● 수정일 : 2008. 3. 9.      ● 게재확정일 : 2009. 3. 12.

● 주제어(keyword) : 『신증동국여지승람』(*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택리지』(*Taekniji*), 지리박물담론(geographic natural history discourse), 핵심어(kernel word), 표제어(title word), 『수경주』(*Sugveongju*), 백과사전형 지리박물담론(encyclopedic type of geographic natural history discourse), 기행문형 지리박물담론(travel account type of geographic natural history discourse), 환유적 확장(metonymic expansion), 대화원리(Dialogic principle).